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16)

다쓰다보의 링, 특수 방적 - 공장이 발신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

다쓰다보의 방적은 2004년 4월에 구마모토(熊本) 공장에 기획과를 만들고 공장이 발신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여러 차별화사를 상품화하고 있다.

2005년 추동절용으로 개발한 것은 캐시미어ㆍ평편 레이온 "바이로프트"ㆍ수피마 면 혼방 소재 "가바레리아 525"로서, 유명 어패럴이 큰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여성용 이너 및 아우터 소재로서 채용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컴퓨터 슬럽사의 "스토미(Stommy) CPS"는 정방 단계에서 슬럽 또는 넵을 붙여줘 독특한 촉감을 만들고 있는데, 캐주얼용으로 인기 소재로 되고 있다.

현재 대나무 섬유로 만든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방적 공정을 개선하여 대나무 섬유의 표면감, 소재감을 살린 소재를 개발하느라 전념하고 있다. 또한 슈퍼 베이비 캐멀(super baby camel)을 사용한 면 혼방사 등의 다쓰다 오리지널의 소재를 찾아내어 개발하고 있다.♣